

# “신남방정책 본궤도 국가발전전략 핵심”

문 대통령, 수보회의서  
“본격 추진 토대 마련  
공아시아 시대 도래할 것  
인도, 美 등과 G3 형성 예상”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남방 정책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번영을 이룰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며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는 신경제지도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세안은 이미 우리와의 교역 규모가 중국 다음으로 크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순방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올해 3월 베트남 순방과 6월 필리핀 대통령 방한에 이어 이번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탄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어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체계를 세우고, 정상 외교를 통해 합의된 사항들을 빠르게 실행하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지게 하여 국민과 기업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는 아시아 시

대가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며 “인도는 머지 않아 최대 인구 대국이 되고 미국·중국과 함께 G3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극 공약할 인도 시장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인도와 싱가포르 순방 외교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순방으로 신남방정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신남방정책의 양대 축은 인도와 아세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도·아세안과의 관계를 미·일·중·러 주변 4개국 수준으로 발전시킬 튼튼한 토대를 다졌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인도 방문에서 양국은 2030년까지 연간 교역액을 500억 달러수준으로 확대하고 첨단과학기술 등 4차산업혁명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특별전략동반자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인도 정부의 신동남정책을 접목시켜 사람 중심의 평화와 상생번영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싱가포르 방문에서는 우리 기업이 싱가포르 내 교통, 인프라 건설 사업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아울러 스마트시티, 핀테크, 바이오, 의료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순방 성과를 소개했다. /뉴스1



전북도의회 임시회 개회

제355회 전북도의회 임시회가 1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전국 최우수 조합 인정

기재부 협동조합 유공자 포상서 ‘대통령 표창’ 영예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이사장 안대성)이 기획재정부 주관 2018년도 협동조합 유공자 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 명실상부한 전국 최우수 협동조합으로 인정받았다. 16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포상은 기획재정부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와 성공모델 구축·확산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협동조합으로 대통령 표창은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이 처음이다.

그동안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은 로컬푸드 생산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지역시장을 확충하고 마을회사의 6차 산업화를 촉진·견인해 왔다. 또한, 농가가 직접 재배한 농산물과 농민 가공센터를 통해 가공품을 생산하고 로컬푸드직매장에 스스로 진열판 매까지 하는 유통방식을 도입해 종래의 농산물 유통구조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렸다. 이외에도 협동조합에서 운영 중인 6개 로컬푸드직매장에서는 당일 수확한

산품을 판매하고, 3개 농가레스토랑에서는 농가계약재배로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상에서는 소외된 고령·중소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창출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중심 협동조합으로서, 신생 협동조합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한 점도 높게 평가 받았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 조합원이 5명 정도인 것에 비해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의 조합원수는 1221명으로, 농가와 마을공동체에서 출자해 조합원으로 참

여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300억원이며, 그동안 누적 매출액은 1040억원에 달하고 있다. 정규직 직원 90명을 고용하고 있어 지역 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그동안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노력과 차별적인 직매장 운영에 따른 자랑스런 결과다”며 “민선7기에도 협동조합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개발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에는 협동조합 95개, 사회적기업 9개, 마을기업 12개, 마을공동체회사 40개 등 사회적경제조직 200여개소에서 2000여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1만지로 인정 받고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 전북, 폭염특보 속 온열질환자 5명 발생

전북도내에 폭염특보가 6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온열질환자가 5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11일 이후 전북지역에서 119구조대가 구조한 온열질환자는 5명이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11일 전주시 덕진구 한 공사장에서는 근로자 최모(50)씨가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어 지난 12일 군산에서는 이삿짐을 나르던 근로자가 열실신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전북지역은 무주·순창·정읍·남

원·완주·임실·익산·전주에 폭염경보가 내려지고, 고창·군산·진안·장수·부안·김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14개 시군 전체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황이다. 이날 전북은 오후 3시 기준 임실 36.3도, 무주 35.4도, 익산 34.9도 등 높은 기온을 보였다. 더구나 폭염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앞으로 일주일가량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낮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가급적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 성장 잠재력 높은 중소기업을 찾습니다

전북도, 내달 6일부터 10일까지 신청접수  
지원기관협의회 심의 의결 통해 수상자 결정

전북도가 2018년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유망중소기업은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고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를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유망중소기업 신청자격은 ▲업력 3

년 이상(도내 이전기업은 1년 이상) ▲매출액 3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도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등이다.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이 오는 8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 관할 시군 기업지원 부서에 신청하면 전북도는

22일까지 추천을 받아 전라북도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이번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인증기간 5년으로 인증서와 인증판이 수여되며 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5억원까지 이차보전 3.0%로 지원(일반기업 3억원, 2.0%)받을 수 있으며,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규격인증획득 등 우선지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진성 기자

## 익산시, 반부패 청렴교육 진행

익산시가 16일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 실내공연장에서 신규 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공직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공무원 130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청렴의식 및 직무윤리 기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강의를 김복현(전·익산시 문화원장)을 초빙, ‘청렴한 공직자’라는 주제로 60분간 교육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신규 공무원들에게 청렴한 공직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